



1920년대 제작된 이후 계속 수정작업을 거친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면 시가지도. 광주읍으로 승격된 1931년까지 광주면의 도로·하천·주요 기반시설 등 도시 구성 전반을 엿볼 수 있다. 이 도면을 보면 당시 광주천의 교량은 신광주교, 광주교, 부동교 등 3곳이었다. 광주천변에 있었던 도시제사공장 및 종연방직공장, 지금의 양동시장의 원조 격인 사정시장, 공설운동장 등의 최초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광주 시가지의 감싸고 흐르는 하천의 존재, 도시 성장 초기 주요 시설을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노란색의 표시는 도로 확장을 앞두고 있는 구간이다.

**■ 광주읍성은**

광주읍성을 현재의 광주 시가지에 옮겨 그려보면 과거 읍성이 지금 구도심의 핵심공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초 축조...現 구도심일대 4개 성문**

광주읍성은 1454년 발간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처음 등장한다. 2008년 광주읍성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의 출토 유물을 기준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축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읍지’는 석축 둘레가 8253척(약 2.5km), 높이 9척(약 2.7m)이며 성안에 100개의 우물과 못이 있었다고 적고 있다. 성문으로 동(서원)문, 서(광리)문, 남(진남)문, 북(공북)문 등 4개 문이 있었으며, 그 주변에는 해자(壕子)가 있어 광주천과 경양방죽 등과 연결돼 있었다. 성내 주요 건축물로는 객사, 아사, 향청 등이 있다. 객사의 중심건물인 광산관은 왕권을 상징하는 권패가 모셔져 있었는데 왕이 파견하는 특사로부터 왕명을 받들기도 했다. 광산관은 지금의 무등극장 부근에 있었다. 아사의 중심건물, 즉 동헌 하모당은 객사의 동쪽, 즉 지금의 전일빌딩과 옛 전남도청 사이에 있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도시 성장의 서곡 ‘광주~송정간 철도 개통’

##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 (광주편) 2. 도시로 성장해가는 광주

1914년 호남선 개통으로 광주 물류거점지 거듭나  
노선 따라 시가지 확장...도로 정비·상하수도 설치  
첫 일본인은 승려·교사남매...1906년 41호 116명

도로인 경복선에 이어 철도 호남선이 개통한 것은 1914년이다. ‘조선의 보물창고’였던 광주·전남의 철도 부설 노력은 1901년 경부선 공사 착수 이전 경부선의 지선 형태로 1898년부터 논의됐었다. 그러나 호남철도 부설권을 놓고 벌어진 한·일 분쟁과 1904년 러·일 전쟁 등으로 그 시기가 늦춰졌고, 결국 일제가 대한제국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해 공사에 들어간 것이 1909년이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주요 농산물과 공산물의 생산거점 이었던 호남을 끝까지 일제에 넘기는 것을 거부하면서 호남선의 부설이 연기된 것이다. 일제는 이 호남선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완전개통은 1914년이었지만 이미 1911년부터 공사가 끝나는 구간을 미리 부분 개통해 사용했다.

이 호남선이 송정리를 경유하면서 행정중심도시 광주를 전남 지역의 물류가 집산하는 물류거점으로 거듭나게 된다. 기존 광주와 법성포를 연결하는 도로의 경유지에 불과했던 송정리는 이 호남선으로 인해 신시가지로 개발되었다. 1914년 광주~송정리간 마차조잡이 조직됐고, 1917년에는 하루 4차례의 자동차 왕복으로, 광주~송정리 간 소요시간이 20분 이내로 단축되는 등 이 두 시가지의 교류는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1921년 광주선, 즉 광주와 송정리를 연결하는 노선과 광주역을 만들어냈고, 이후 담양과 여수로 향하는 노선까지 더해지면서 광주는 명실상부한 철도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그리고 당시 광주시가지의 둘러싸는 듯한 이들 노선은 읍성 및 그 주변에 불과했던 시가지를 동쪽으로

로 넓히는 기능까지 했다.

광주에 외국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은 목포항 개항 시기와 일치한다. 1897년 7월30일 목포항이 일제에 의해 강제 개항된 뒤 3개월이 지나 광주에 진출한 첫 일본인은 오쿠무라 엔신과 오쿠무라 이오코 남매였다. 오빠는 일본 승려였고, 여동생은 1898년 10월 잡업을 가르치는 실업학교를 만든 교육자였다. 미국 선교사들도 광주를 찾았다. 1898년 미국인 선교사는 당시 광주면 양림리의 토지를 첫 매입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주류는 역시 일본인들이었다. 오쿠무라 남매가 보좌촌, 지금의 양림동 광주천변에 자리를 잡은 지 10년 만인 1906년 말 일본인은 41호 116명에 이르렀고 그들은 광주 일본인회를 만들어 개발이익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광주에 찾은 일본인은 당시 목포항에서 광주로 우편물을 나르는 일을 시작으로 농장을 개간하고 상점을 열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1931년 목포신보는 1905년 우편배달부였던 일본인의 회상을 실고 있다.

“1905년 광주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시가는 성내와 성외로 나뉘어져 있었고 당시 우리는 우편물을 지게에 지고 짚신을 싣고 작은 길을 더듬어 남평으로 나와서 1박, 영산포에서 1박, 함평 몽탄에서 1박 등 왕복 6일을 다녔습니다. 당시 광주의 일본인은 농사 경영을 하고 큰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1905년 광주우편취급소, 1906년 일본인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인 광주심상소학교, 1907년 일본인 경찰, 1908년 30여 명의 일본인 관·객사로 구성된 광주제관소 신설 및 농공은행 설립 등 근대적 성격의 기관들을 속속 광주에 꽃아넣었다. 이러한 기관들을 연결하는 도로도 서둘러 정비돼 간 것은 물론이다. 1907년 경복선은 광주교를 만들고, 지금은 사라진 화니백화점 후문 총장로 4가에서 왼쪽은 장성을 거쳐 서울로 향하는 도로, 오른쪽은 총장로 3가부터 옛 전남도청으로 향하는 도로를 각각 완성했다. 강제 병합을 1년 앞둔 1909년 일제는 ‘남한쪽대도 별작전’의 하나로 광주에 수비대를 주둔시키기도 했다.

강제 합방 이후 광주면사무소, 광주군청, 전남도청 등 행정기관을 점수한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했던 광주 구도심, 광주면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착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비사업은 일본의 고베, 오사카 등지의 일본 사업가들이 맡았고, 수도·하수 등의 설치도 본격화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청·전라남도청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다채로운 봄빛마을 구례로 오세요!

구례군 구례군의회